

## 59종의 에너지 개발연구 이스라엘 工科大学서 착수

「하이파」에 위치한 「이스라엘」工科大学(통칭 Technion)은 4月8日, 59종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사업들은 100名の 교수진에 의해 進行되고 있다.

영문으로된 이보고서는, 그 내용이 작년에 설치된 에너지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해서 작성된 것이다.

연구되고 있는 분야에는, 자연 에너지(태양및 기타)의 이용, 연료세포, 자연 물질 및 폐물로부터의 합성연료, 태양열 집결장치 산업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 문제, 대규모 발전을 위한 풍력 에너지의 이용,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액체연료의 내연과정의 개선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보고서는 대부분의 연구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두가지 방향만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하나는 태양열의 이용이며, 다른 하나는 재래식 열과 전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문제이다.

## Impact Loan 導入 日本原子力發電에서 450萬\$

日本 原子力發電은 450萬弗 相當의 Impact Loan 導入方針을 決定하고, 美國의 Manufacture Hanover Thrust, Co. National Bank of Commerce of Seattle 英國의 Royal Bank of Canada Thrust Corporation의 三個 外國銀行과 交渉에 들어갔다.

이것은 資材, 工事費의 引上이나 電發所 運轉經費의 增大등에 依한 資金逼迫에 對處할 것이나, 지금까지에도 69年度에 우란鑛石代金으로 로이알 뱅크 오브 캐나다 틀러스트, 코아포레이션에서 370萬弗의 「임팩트 론」을 들여온 實績이 있다.

또한 電力 9個社는 이미 極度の 資金부족에 對處하여 總額 9,300萬弗 相當의 「임팩트 론」의 導入을 決定하고 있으나 來年度에는 「임팩트 론」 외에도 外債發行에 對해서 檢討를 서두르고있다.

## 2050년까지 에너지 自給 캐나다 潛在原油가스資源 輸出도

캐나다정부는 에너지 白書에서 밝힌바에 依하면 2,050년까지의 豫測으로 電力은 그 時點까지는 全 에너지 必要量의 約 90%를 차지하고, 그 結果 電力會社가 如前히 發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백서는 天然개스의 需要를 滿足시키는 天然개스의 總量은 5百1~6百1兆立方 feet의 範圍이다.

2,050년까지에는 天然개스는 全 에너지市場에서 電力에 代替될 것인지 알수없다.

原油에 對한 豫測에 依하면 캐나다는 2,000年을 지나도 國內의 從來의 原油와 露天에서 採掘되는 탈센드에 依하면 自國內 需要를 滿足시킬 수가 있다.

그 이후에는 採收技術의 實用化에 따라 開發된 탈센드와 石炭에서의 合成石油가 그 時機에는 더욱 cost up이 되어있는 從來의 石油와 露天採掘 탈센드에 追加하여 必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現在의 캐나다의 潛在石油가스 資源에 對하여서는 推測하건데 적어도 2,050년까지에 必要한 國內需要에 알맞는 에너지資源 이상의 것이 存在하고 있어 輸出可能한 原油 개스도 相當한 量이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